

요순 정치의 회복, 다산 정약용의 홍범(洪範)론

김호*

〈차 례〉

1. 머리말
2. 구주(九疇), 선정(善政)의 길잡이
3. 황극(皇極), 「홍범」의 실천
4. 삼덕(三德), 현능한 인재
5. 팔정(八政), 재정(財政)의 중요성
6. 오사(五事), 지성(至誠)의 정치
7. 복극(福極), 상벌의 권한
8. 맺음말

[국문초록]

다산은 사망 직전 『상서』에 대한 주석서를 완성하여, 조선후기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견해를 제시했다. 고대의 이상 정치로 상징되는 요순통치에 대한 다산의 평가는 한마디로 '현능한 지도자가 부지런히 정무에 힘쓴 결과[有爲]'였다. 다산은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는 무위이치(無爲而治)야말로 어리석은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능한 지도자는 반드시 유능한 관리들을 선발하여 관직을 나누어주고 이들이 부지런히 과업을 수행하는지 철저히 살폈다[考績]. 다산은 「홍범」이 바로 요순정치의 핵심 교훈이라고 정의하고 새롭게 재해석했다. 특히 「홍범」의 9개 범주에 붙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황극[최고권력]을 중심으로 한 통치행위 전반으로 이해할 것을 제언했다. 오행은 단지 하늘이 내려준 자연의 '재료'에 불과하고 이를 활용[利用]하여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면[厚生] 그만이었다. 따라서 정치[八政]는 오직 국가의 세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경제 및 재정 정책이 가장 중요했다. 한편, 「홍범」에는 왕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현능한 자들의 자질[三德]이 설명되어 있을뿐더러, 왕이 현능한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잡는 수신의 항목들[五事]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의 지위[皇極]가 절대적인 것은 바로 상벌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왕은 이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능력있는 신하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만 했다[福極]. 왕이 이상의 통치행위를 지성으로 수행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왕으로 하여금 선정의 기회를 허락할 것이었다. 다산은 조선의 왕들이 「홍범」의 가르침에 따라 현능한 관료를 등용하여[知人]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安民]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고전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經學]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경제의 개혁안[經世論]이 본인의 역축이 아닌 '고대의 지혜[周禮]'를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어] 상서고훈, 정약용, 홍범, 皇極, 정약용, 요순정치

1. 머리말

다산은 1834년 『상서고훈』을 완성한 후 하늘이 도와 완성한 책이라고 자평했다. 자신이 직접 자료를 초록하고 편(編)과 집(輯)을 도맡아 이루어낸 성과라고 흐뭇해했다. 특히 본인의 해석이 매우 독창적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73세의 나이에 이루어낸 대단한 업적인 만큼 감회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요순의 정치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다산은 이 책의 완성을 간절히 원했다. 심지어 죽기 전에 완성할 수 있어 다행이라 했을 정도였다.¹⁾

그동안 학계에서 조선시대 『상서』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물론 조선의 상서학에 대한 수 편의 논문과 책이 저술되어 참고가 된다.²⁾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산 정약용의 상서학 연구는 상당수

1) 『尙書古訓』 권7 「跋」(『定本』 12, p. 350) “右尙書古訓二十一卷, 余所輯, 余所編, 又余之手鈔者也. 起工于二月二日, 告竣于六月十日, 其間一百二十八日. 始不自意, 賴天之佑, 今幸卒業于未死, 幸矣哉. 余齡七十三, 後七日, 六月既望, 余弧辰也. 幸而至是, 當以是七冊自壽之. 當寧三十四年六月上澣, 溯水老人書.[道光甲午]”

2) 상서학 일반에 대한 소개는 위중, 이은호 역, 『상서 깊이 읽기-동양의 정치적 상상력』, 글항아리, 2013; 유기우, 이은호 역, 『상서학사-상서에 관한 2천여 년의 해석사』, 예문서원, 2016. 등을 참고할만하다. 조선시대의 상서학 연구사는 김만일, 『17~18세기 상서 해석의 새로운 경향』, 경인문화사, 2007를 참고할 수 있다. 조선학인들의 상서학 연구와 관련하여 이은호의 논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은호, 「퇴계의 『書釋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64, 2010; 이은호, 「이환모의 『서전기의(書傳記疑)』에 보이는 해석의 다양성」, 『태동고전연구』 46, 2021; 이은호, 「두실 이환모의 홍범관 연구」, 『東洋哲學研究』 109, 2022. 이은호, 「『상서고훈』, 상서에서 찾은 새로운 도덕론」, 『다산학공부』, 둘째개, 2018. 이외 이영준, 「『상서』 강의를 통해서 본 정조의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에 관한 인식과 해석 방식에 대하여」, 『漢文學論集』 59, 2021; 안승우, 「성호 이익의 홍범에 대한 관점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86, 2021 등을 참고할만하다. 「홍범」에 관한 조선학인들의

김문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다산의 상서학 관련 저술의 서지 및 판본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다산 경학과 경제학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다산의 경학 연구 태도와 방법론으로부터 그의 경제론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태학(太學)과 육향제(六鄉制)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³⁾ 한편 근래에 다산의 『상서고훈』에 대한 번역작업이 점차 완료되면서 다산 상서학의 전모에 대한 접근 또한 용이해지고 있다.⁴⁾ 그럼에도 다산 정약용의 상서학을 포함한 경학 및 경제학 연구는 여전히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본고는 동아시아 이상 정치의 모범으로 알려진 『홍범』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 중심으로, 그가 모색했던 정치개혁의 밑그림을 파악해보려는 의도에서 준비되었다.⁵⁾ 『홍범』의 ‘황극’을 강조한 다산의 주장이 국왕권의 강화와 밀접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산의 황극론은 단순한 왕권 강화나 권력 집중에 국한되지 않았다.⁶⁾

다산의 경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통치론’ 즉 지도자를 위한 학문에 다름 아니었다.⁷⁾ 주희가 『대학』을 만인의 수신학(修身學)으로 규정했다면, 다산은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학문으로 정의했다. 이에 다산은 대학을 성인 일반의 공부라 아닌 지도자의 태학(太學)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신에서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공부 역시 필부(匹夫)의 학문이 아니라 치자

연구사는 소진현, 『조선 후기 왕의 권위와 권력의 관계: 황극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 논문, 2016에 자세하다.

3)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15~22쪽.

4) 김인중은 번역작업에 동참하면서 다산 상서학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다산 경학과 경제학의 연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재차 강조했다(김인중, 『상서고훈 해제』,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1, 학자원, 2020). 본고에서 인용한 『상서고훈』의 번역문은 실시학사에서 펴낸 책을 참고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1~4, 학자원, 2020~2021).

5) 필자가 다산의 『홍범』론에 주목한 이유는 『경제유표』의 개혁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산 경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팔정을 국가의 ‘재정’ 운용으로 파악한 다산의 『홍범』 해석은 매우 특별하다. 다산의 논의는 조선시대 다른 학자들의 주장과 비교·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6) 노지현, 『정약용의 《상서고훈》 『홍범』편에 대한 소고』, 『세계사 속의 다산학』(김영호 편), 지식산업사, 2021.

7) 김문식, 위의 책, 2021, 350~357쪽; 정일근, 『다산사서경학연구』, 서울대출판부, 2021, 490~504쪽; 전성건, 『정약용의 철학사상과 체제개혁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61~99쪽.

(治者)의 학문으로 규정했다. 가령 ‘평천하’ 구절은 한 나라의 국왕이나 제후-조선의 경우 관찰사[方伯]-처럼 안민(安民)의 의무를 다할 사람들의 공부 처였다. 다산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대학을 개인의 수신서로 읽다가 결국 평천하에 이르면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고만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홍범』은 삼대(三代)의 정치 비전이 담긴 지도자학의 정수였다. 따라서 『홍범』에 대한 다산의 해석은 조선후기의 난세를 개혁할 ‘새로운 지도자상(像)과 통치론’에 다름 아니었다. 다산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현능한 지도자는 ‘지인(知人)과 안민(安民)’의 덕목을 가지고 ‘치국평천하의 업적’을 이루어야만 했다. 요컨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富)와 귀(貴)를 공정하게 분배-지인으로 귀를 나누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안민을 도모하는-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부가 부와 귀를 독점한다면 그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 것이었다.

다산은 『홍범』 전편을 통해 국가 재정(國富)의 중요성과 함께 인재 관리를 위한 고적 시스템을 강조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은 부지런히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세밀함은 득보다 실이 컸다. 덕을 갖춘 왕의 주변에는 반드시 현능한 관료들이 모여들 것이고 이들을 감독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운영은 별 무리가 없었다. 능력있는 관리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부]를 주고 명예[귀]를 제공하기 위해 나라의 재정이 튼튼하기만 하면 충분했다.

본론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권력의 기초로서 ‘상·벌’의 권한을 강조했던 다산은 관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홍범』의 팔정(八政)에 대해 음양오행과 같은 신비한 논의를 배격하고 오직 재정의 측면에서 해설했다. 한마디로 ‘정치’는 국가의 재정운용에 달려있었다. 그의 개혁안이 주로 토지 및 부세 개혁에 집중한 이유였다.

2. 구주(九疇), 선정(善政)의 길잡이

알려진 대로 「홍범」이란 텍스트는 무왕이 기자를 방문하여 정치의 도리를 물은 데 기초하고 있다.

무왕이 말했다. “기자여. 하늘이 은밀하게 백성을 안정시켜 그들의 삶을 돕고 화합시키는데, 나는 그 도리[彝倫]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⁸⁾

무왕이 선정(善政)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자, 이에 응한 기자의 답변이 바로 「홍범」의 정치학이다. 무엇보다 다산은 「홍범」을 하늘이 신비하게 내려준 선물이나 비결로 해석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다산이 보기에, 고대에는 천명에 밝은 이들이 많았고 하늘의 길상을 신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종교적 마음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다산 당대의 사람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천명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구절에 심취하여 곧바로 신비한 점괘나 비결로 오해할 뿐, 좋은 정치는 인간의 지극한 실천[감천할 정도의 지성]으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전연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⁹⁾

고대인들은 지성을 다하여 성과를 올리면 하늘이 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하늘의 계시에 앞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범」의 교훈은 하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이 노력한 결과라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했다. 「홍범」을 하늘에서 온 신비한 비결로 이해하게 되면, 인간사가 아니라거나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리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산은 요·순과 우임금의 선정이 신화가 아닌 ‘인간의 사업[行事]’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로 규정했다.

8) 『尙書古訓』 권4 「洪範」 “王乃言曰: “嗚呼, 箕子! 惟天, 陰騭下民, 相協厥居, 我不知其彝倫攸斁”

9)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案: 箕子所言‘帝不畀, 天乃錫’, 是古人之恒言, 而今人之所不能遽通也. 古人均知天命, 凡吉祥名位, 咸受之爲天錫. 其有不獲, 咸知爲天不畀. 今人不知天道, 凡有所得, 自矜其智力. 其有不獲, 自恨其孤弱. 今見天錫之文, 遂謂天書下降,[洛出書] 此古今之異也”

만약 곤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명을 어겨 무리를 해치지 않으며 치수에 성공하여 우가 한 것처럼 수도를 평정하였다면 순은 필시 천하를 곤에게 전했을 것이고, 곤은 응당 황극을 세우고 구주를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이 ‘하늘이 노하여 『홍범』구주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구절의 의미이다. 우는 뒤이어 등용되어 마침내 천하를 얻어 황극을 세우고 구주를 받았다. 이것이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었다.’라는 구절의 뜻이다. 어찌 서(書)가 하늘에서 내려왔겠는가? 다만 우가 하늘의 명을 받아, 황극의 지위에 앉아 지혜를 운용하고 법을 만들며, 구주의 규범을 세워서 왕이 황극을 세우고 다스림을 내는 큰 법으로 삼았다. 이 또한 하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니, 하늘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서(書)가 하늘에서 내려왔겠는가?)¹⁰⁾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펼친 자가 업적의 결과로 ‘황극’의 지위에 올랐을 뿐이었다. 만일 곤이 통치의 능력을 보였다면 우를 대신하여 왕위를 이었을 터다. 우가 황극에 오른 것은 그가 보인 정치적 능력과 그 결과[업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상이었다. 다산에게 『홍범』은 ‘황극의 지위’에 오른 능력 있는 지도자의 사업에 관한 기록일 뿐 신화가 아니었다. 『홍범』을 하도·낙서 등의 신비한 비결과 연결짓는 순간 통치의 방도와는 관계없는 맹랑한 이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다산이 보기에 이전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병폐를 만들었다.

『역대전(易大傳)』에 “하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자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고 했다. 이는 대개 역도(易道)의 근본으로 『홍범』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도와 낙서의 설은 다섯 번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하출도, 낙출서’라는 두 구절뿐이었는데, 한 번 변하여 용마와 신귀의 설이 나오고, 두 번 변하여 팔괘를

10)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等) “使鯀不嫫婁, 不方命圯族, 治水告功. 地平天成, 如禹之爲, 則舜必傳天下於鯀矣. 鯀當建皇極而領九疇. 顧不能焉, 是帝乃震怒, 不畀以洪範九疇也. 禹能嗣興, 遂得天下, 建皇極而領九疇, 是天乃錫禹洪範九疇也. 豈有書自天降來乎, 特禹受天之命, 宅此皇極之位, 運智設法, 創立九疇範, [如下文] 以爲王者建極出治之大法. 斯亦天啓其衷, 可云天錫之也, 豈有書自天降乎.”

그리고 「홍범」을 배열하는 근거가 되었다. 세 번 변하자 천포[天苞: 하도]와 지부[地符: 낙서]의 서(書)가 되고, 네 번 변해 검은 점과 흰 점 55개로 이루어진 하도의 그림과 45개로 이루어진 낙서의 그림이 되었다. 다섯 번째 변하자 5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대연도, 4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홍범」이라 하게 되었다. 그 설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따질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천지의 바른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학의 종지(宗旨)가 이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탄스럽다.¹¹⁾

다산이 음양오행과 같은 술수학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기왕의 주석들은 「홍범」의 하도낙서를 신이한 수비(數秘)와 뒤섞어 도무지 「홍범」의 진의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다산은 잘못된 「홍범」 해석을 비판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정치로 해석하고자 했다. 본격적으로 「홍범」구주를 논하기에 앞서, 다산은 9주(九疇)라는 글자에 주목했다. ‘주(疇)’라고 했으니 일단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주는 기본적으로 토지[田]의 두둑, 즉 경계를 의미하는 글자였다. 그렇다면 「홍범」구주 역시 정전(井田)의 모습을 띤 아홉 개의 정방형 그림이 분명했다.¹²⁾

다산은 「홍범」구주를 신비한 해석으로부터 떼어놓은 후 오직 아홉가지 ‘정치’의 영역으로 접근했다.

「홍범」구주는 첫째 오행, 둘째 공경에 오시를, 셋째 후생에 팔정, 넷째 하늘과 화합하는데 오기(五紀)를, 다섯째 표준[極]을 세우는 데에 황극(皇極)을, 여섯째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삼덕을, 일곱째로 의혹을 분별하는 데 계의(稽疑), 여덟째 살피서 징험하는 데 서징(庶徵)을, 아홉째 권면하는 데에 오복(五福)을, 징계하는 데

11)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辨曰《易大傳》曰: “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 此二者, 蓋易道之所本, 與《洪範》何干. 《河圖》·《洛書》, 凡有五變. 其始也, 唯是河出圖洛出書二句而已. 一變而有龍馬神龜之說. [《禮運》云‘河出馬圖洛龜’, 本出《緯書》] 再變而爲畫卦陳範之本. [見《漢書》] 三變而爲天苞地符之書. [《春秋緯》] 四變而爲五十五點四十五點黑白之圖. [出陳搏] 五變而五十五點以爲大衍之圖, 四十五點以爲洪範之圖. [見《大全》] 其說紛綸錯綜, 不可究詰. 而今人知之天地正理, 無出此外, 道學宗旨, 都在此中, 誠可歎也.”

12)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駁曰疇者, 田區也. 余謂夏禹之法, 唯九是用. 井田國都, 皆作九區, [義見前] 而仍用方形, 不用圓法, 則此洪範九疇, 亦必列爲九區, 形如井田. 如是然後, 其相應相關之妙, 始有可觀.”

육극(六極)을 쓰는 것이다.¹³⁾

다산은 이상 아홉의 항목들 모두 ‘왕의 통치행위’와 밀접한 범주들로 해석했다. 무엇보다 중앙의 ‘황극’이 가장 중요했다. 최고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산은 오행에 숫자 1이 붙어 있다고 해서 오행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거나 이를 오해하여 지나치게 신비한 해석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극에 숫자 5가 붙은 것은 임의적일 뿐이었다.

| | | |
|---|--|--|
| <p>七. 稽疑</p> <p>悔 貞 克 驛 蒙 霽 雨</p> | <p>四. 五紀</p> <p>曆 星 日 月 歲 數 辰</p> | <p>一. 五行</p> <p>土 金 木 火 水</p> <p>稼 從 曲 炎 潤 穡 革 直 上 下</p> |
| <p>八. 庶徵</p> <p>風 寒 燠 暘 雨</p> <p>聖 謀 哲 乂 肅 蒙 急 舒 借 狂</p> | <p>五. 皇極</p> | <p>二. 五事</p> <p>思 聽 視 言 貌</p> <p>睿 聰 明 從 恭 聖 謀 哲 乂 肅</p> |
| <p>九. 福極</p> <p>考 攸 康 富 壽 終 好 寧 疾 凶 命 德 憂 疾 短 弱 惡 貧 憂 疾 折</p> | <p>六. 三德</p> <p>柔 剛 正 克 克 直</p> <p>玉 作 作 食 威 福</p> | <p>三. 八政</p> <p>師 賓 司 司 司 祀 貨 食 寇 徒 功</p> |

13)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0~71쪽) “初一日五行, 次二日敬用五事, 次三日農用八政, 次四日協用五紀, 次五日建用皇極, 次六日乂用三德, 次七日明用稽疑, 八日念用庶徵, 次九日嚮用五福, 威用六極.

정전의 방형도(方形圖)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가장자리[1.3.7.9]가 아니라 중앙[5]이었다. 황극은 위로는 자연[天]이 배풀어준 산물[재료-오행]을 활용하여, 아래로 땅에 붙어사는 이들[인민]의 후생(厚生)을 책임지는 통치자였다. 그는 천과 지를 잇는 중간자의 역할(권한과 의무)을 다해야만 했으니, 한마디로 천지 사이의 인민을 잘 다스려 치국, 평천하를 꾀하는 일이었다.

먼저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황극에 대한 다산의 설명을 들어보자. 다산은 “황극이 가운데에서 중도[中]를 세우고 표준[極]을 세워, 위로 천시(天時)를 따르고 아래로 사람을 통치한다. 때문에 오기(五紀)를 위에 두고 삼덕(三德)을 아래에 놓았다.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근본을 바르게 하여 화기(和氣)를 불러들이는 것은 군주의 엄밀하고 절실한 공효(功效)이다.”라고 해설했다.

군주 스스로 수신에 철저히야 비로소 시시비비의 기준과 중도를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황극(군주)의 좌우에 오사와 서징이 배치된 것이다. 오사(五事)는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근본을 바르게 하는 덕목을 말하고, 서징(庶徵)은 조화로운 기운이 상서로움을 불러오고 패려한 기운이 재앙을 야기하는데 대한 징험을 의미했다. 따라서 정치의 시작은 군주의 ‘수신’ 즉 몸가짐으로부터 비롯했다.

다산은 네가지(4오기, 2오사, 6삼덕, 8서징)야말로 군주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황극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진열했다고 주장했다. 군주의 통치는 수신에서 시작하여 치인(治人)에 도달해야 했다. 군주의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능한 자를 알아볼 수 없고[知人], 이들을 등용하여 안민(安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앞에 언급한 대로 다산은 『대학』과 『중용』을 서인(庶人)이나 필부의 학문이 아닌 지도자를 위한 교과서로 규정했다.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의 수신[律己]을 강조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¹⁴⁾

한편, 나머지 요소들(1오행, 3팔정, 7계의, 9복극) 가운데 오행은 음양오행

14) 『牧民心書』 律己 6條(『定本』 27, 66~86쪽).

과 같은 수비(數秘)의 상징이 아니었다. 다산은 오행을 철저히 ‘물질’로 파악하고 인민의 삶을 안정(安民)시킬 재료, 즉 이용후생의 물질적 토대로 해석했다. 이는 다산의 독창적인 해석이 빛나는 대목이요, 향산을 강조했던 그의 철학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다.

하늘이 낸 재물을 오행(五行)이라 하고 그것을 받아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팔정(八政)이라 한다. 오행을 위에 놓았으니 하늘이 내려준 것을 존중한 때문이고 팔정을 아래에 놓았으니 사람의 용도를 서술한 것이다. 이것이 ‘오행’과 ‘팔정’이 서로 조응하는 묘리이다[모두 재용(財用)이다.]¹⁵⁾

다산은 자연(의 재료)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후생]이야말로 정치[八政]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살림살이가 가장 중요하듯이 권력자의 통치행위 역시 국가의 살림[財用], 즉 재정 운용이 핵심이었다. 다산에게 한 국가의 운명은 한마디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 국가의 지도자(혹은 지역의 관리자)는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지성을 다한 이후라야 하늘의 뜻(感天)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늘에 비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도 미래의 길흉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 우러러 천명(天明)에 물어야 했다. 다산은 이를 계의(稽疑)의 본의로 해석했다. 그 다음 하늘에 뜻을 물어 화복(禍福)이 결정되면 이를 인간사에서 징험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극(福極)이었다.¹⁶⁾

지금까지 「홍범」구주에 대한 다산의 대략적인 설명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다산은 「홍범」을 신비한 해석으로부터 구해냈다. 하도낙서와 「홍범」을 연결할 이유가 없는데도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근거도 없이 이

15)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原夫天生材物，謂之五行。受而修之，謂之八政。故五行戴之在上，所以尊天賜也。八政履之在下，所以絀人用也。此一與三相應之妙也。[皆財用]”

16)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吉凶未著，仰詢天明，謂之稽疑。禍福已判，俯驗人事，謂之福極。在天者戴之在上，在人者履之在下，此又七與九相應之妙也。此之謂天道，此之謂大法。”

를 연결하자, 「홍범」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을 뿐이었다.¹⁷⁾ 「홍범」은 자연의 신비한 계시가 아니라 능력자[聖人]들이 백성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선정(善政)의 방도였다.

3. 황극(皇極), 「홍범」의 실천

「홍범」의 교훈은 무엇보다 치자(황극)의 책무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다산은 ‘극’을 지붕의 꼭대기이자 중심으로 해석했다. 왕은 통치의 정점이었다. 황극의 지위는 정전(井田)에 비유되기도 했다. 황극이 구주(九疇)의 가운데 있는 것은 공전(公田)이 구부 가운데 있듯이 사방(四方)과 사유(四維)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건기유극(建其有極)’ 역시 정전의 한 가운데가 공전이요 중심이라는 의미요, ‘염시오복(斂時五福)’ 또한 왕이 권강[權綱: 권력의 핵심]을 모두 장악한 상태로 해석되었다.¹⁸⁾

황극이 통치의 권병을 장악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산은 첫째 생사여탈의 권한을 쥐고 있으며, 둘째 국부 운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백성들의 평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넷째 교화의 방도를 운영하며, 다섯째 고적과 평가의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① 숨을 내쉬면 비와 이슬이 되고 들이쉬면 서리와 눈이 되어 생사와 존망이 오직 임금의 뜻에 따르니, 첫째 삶[壽]의 권한[權柄]이 황극에 있다. ②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왕의 땅 아닌 데가 없으며, 아무리 낮은 관리와 직분이라도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으니, 둘째 부(富)의 권병이 황극에 있다. ③ <백성들> 쉬게 하고 기르는 것이 오직 임금의 은혜이고, 부리고 수고롭게 하는 것도 임금의 명을 따르니, 셋째 강녕(康寧)의 권병이 황극에 있다. ④ 교화하여 인륜을 밝히고 도를

17)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原來〈洛書〉·〈洪範〉, 本非一物, 彼爲彼, 我爲我, 本非族類, 無故無端. 以人力配搭, 豈有相應之理乎.”

18)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0~81쪽) “籀按 極之爲字, 本起於屋極. (중략) 皇極居九疇之中, 如公田在九畝之中, 爲四方四維之攸極, 故曰建其有極也. 斂時五福者, 人主總攬權綱, 握之在手中也.”

뉘야 하늘과 통하게 하려고 왕은 사도(司徒)와 전악(典樂)에게 명하니, 넷째 유호덕(攸好德)의 권병이 황극에 있다. ⑤ 공적과 행실을 살펴서 선악을 결정하고 선한 자는 예로 올려 하늘에 배향하도록 하고 악한 자는 나쁜 시호를 내리니,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의 권병이 황극에 있다.¹⁹⁾

최고 권력은 인민의 생사여탈을 비롯하여 부(富)와 귀(貴)의 재분배, 신상 필벌의 권한을 모두 쥐고 있었다. 특히 향산의 기초를 마련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살도록 하고 이들 중 능력 있는 자들을 선발하는 일이야말로 왕의 주요 권한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엄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왕의 책무였다.

다산은 황극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즉 통치의 권병을 쥐려면 국가의 재정 능력, 다시말해 국부(國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능력있는 신하를 움직이도록 하려면 능력에 맞게 부와 귀로 대접해야만 했다. 귀는 관직과 밀접하므로 적당한 지위를 베풀어 명예를 북돋고, 나이가 업적에 합당한 인센티브[부]를 지급하여 그의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만 했다. 다산은 성공한 나라의 비결은 이른바 재능있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봉록을 주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능력이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결국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을 터였다. 다산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들을 등용하여 녹봉을 준다면, 왕은 사람을 잘못 등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²⁰⁾

조선후기의 현실은 이와 전연 달랐다. 국왕은 상을 내려줄 토지도 벌을 내릴 판단의 기준도 갖지 못했다. 개인들이 토지를 사유화해서 임금은 한 치의

19)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0~81쪽) “嘯之爲雨露, 吸之爲霜雪, 生死存亡, 唯辟是順。一曰壽之柄, 在皇極也。尺土寸地, 無非王田, 斗祿鞭土, 罔非王臣。二曰富之柄, 在皇極也。休養生息, 唯辟其恩, 驅使勞動, 唯辟其命。三曰康寧之柄, 在皇極也。立教以明倫, 修道以達天, 王命司徒, 王命典樂。四曰攸好德之權, 在皇極也。稽其功行, 定其善惡, 或許之陟配, 或賜之惡諡。五曰考終命之權, 在皇極也。”

20)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4쪽) “人之有能有爲, 使差其行而邦其昌。凡厥正人, 既富方穀, 汝弗能使有好于而家, 時人斯其辜。于其無好德, 汝雖錫之福, 其作汝用咎。”

땅도 없었기에 백성에게 부를 나누어 줄 수 없었다. 또한 집집마다 가르침을 베풀어 임금이 도의 모범을 펼치지 못하고 백성에게 덕을 내릴 수 없었다.

다산에게 부와 교는 통치의 핵심 조건이었다. 특히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야 국왕은 능력있는 자에게 그만큼 봉록을 주고 부를 분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터라 국왕이 부의 재분배에 관여할만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교육[가르침]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집집마다 교화의 기준과 목표가 달랐다. 주자의 해석에 따라 모두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주인이 되자, 전 인민이 시시비비의 주인을 자처했다. 최종 심급의 결정권이 왕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형이하의 부를 분배할 여력도, 형이상의 가치판단을 결정한 권한도 없다면 왕의 지위는 황극은커녕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공자의 말대로 통치의 주요한 권한이 모두 아래로 옮겨간 것이었다.²¹⁾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지관(地官)을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있다. 『주례』에서 지관은 국가의 재정과 교화를 담당했던 만큼, 황극의 권한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경전(耕田)이 급선무’라는 다산의 주장은 토지 및 부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토로였다. 아울러, 국왕은 가치판단의 기준[極]이자 실행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다산이 힘주어 강조했던 효·제·자의 가치를 국왕이 위에서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아래의 만백성이 저절로 감화되도록 해야 했다. 향산이 통치의 필요조건이라면 향심은 통치의 충분조건과 같았다. 민심의 통합은 왕의 행사(行事)가 향심의 판단 기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 모든 인민이 왕의 통치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왕을 지지할뿐더러 함께하고자 모여들 것이요, 그렇지 않고 편벽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음봉을 만들어 갈등할뿐더러 배반할 것이 분명했다.²²⁾

21)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0~81쪽) “後世人私其田, 皇無寸土, 則皇無以錫民富矣. 家立其教, 皇不布道, 則皇無以錫民德矣. 孔子論治, 曰富曰教. 而二者之柄, 皆已下移, 則餘無不然者矣. 將何以建極出治哉, 經田所先務也. [『知遠錄』]”

22)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2쪽) “案: 人也, 庶民也. 似皆通上下而言之也. 民之嚮會于皇極, 如三十輻, 共向于一轂, 如百川萬流, 共向于大海. 私相嚮會者, 皇則惡之. 淫朋相聚, 或推一人以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긍정하는 순간은 부와 귀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판단할 때였다. 부를 좋아하는 소민들에게는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그리고 귀(貴)를 추구하는 사족에게는 관직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왕에게로 귀일시켜야만 했다. 부와 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능력있는 이들은 울분에 차고, 가난한 이들은 굶어 죽을 터였다. 다산이 보기에 18세기 후반 조선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분배[自食其功]’가 전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원래 생민에게 욕망이 있는데 그중 큰 욕망이 두 가지이다. 첫째 부(富)이고 둘째 귀(貴)이다. 무릇 군자의 족속은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귀하게 되는 것이다. 소인의 족속은 왕의 들뜬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관리의 임명에서 마땅함[宜]을 잃으면 원망과 비방이 귀족에서 일어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고르지[周] 않으면 원망과 비방이 소민에게서 일어난다. 두 가지 모두 나라를 잃게 할 수 있다. 국가의 치란과 흉망의 원인 그리고 민심의 항배와 거취를 묵묵히 생각해보면, 원인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으로 성인의 말은 모두 신중한 생각과 분명한 판단의 결과이다.²³⁾

다산은 나라의 운명이 ‘부와 귀’의 공정한 분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관직을 나누는 데 편당(偏黨)의 마음을 먹고 공평하지 않으면 군자들이 원망하고, 부의 분배가 일부에게 집중되면 소인들이 울분했다. 다산이 보기에 역사의 치란(治亂)은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었다.

인민들 가운데 지략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골라 등용하는 것[知人]이 시급했다. 이들 현능한 관료들이 부지런히 성과를 올리도록 부와 귀로 격려

爲長，比德相讓，或戴一人以爲賢，黨同伐異，負私滅公，則其國必亂，豈所謂建極乎。”

23) 『尙書古訓』 권2 『皐陶謨』(『定本』 11, 246쪽) “原夫生民有欲，其大欲有二，一曰富，二曰貴。凡君子之族，仕於王朝者，其所欲在貴。小人之族，耕於田野者，其所欲在富。官人失其宜則怨詛興於貴族，惠民有不周則怨詛興於小民，二者皆足以失國。默思人國之所以治亂興亡，人心之所以向背去就，不出此二者之外。信乎，聖人之言，皆自慎思明辨中出來，非衆人羸心者之所能知也。”

한다면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安民]이었다.²⁴⁾ 다산은 이것이야말로 『홍범』의 가르침이요, 요순 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4. 삼덕(三德), 현능한 인재

훌륭한 지도자는 현능한 사람을 알아보아야 했다. ‘지인(知人)’은 선정을 이루었던 통치자들의 기본 능력이었다. 어떤 인재를 고를 것인가? 『홍범』의 삼덕(三德)은 현능한 신하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었다.²⁵⁾ 첫째 정직, 둘째 강극, 셋째 유극이 그것이다.²⁶⁾

(신하된 자가) 평소애 지녀야 하는 기본 덕목은 곧고 정직함이다. ①동료 사이에 강포하여 화합하지 않는 자는 강으로 바로잡아 주고, ②동료 사이에 서로 화합하는 자에게는 유로 양보한다. ③낮은 자리에 침체되어 있을 때는 강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④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유로 자신을 극복한다.²⁷⁾

정직은 글자 그대로 바르고 굳센 모습이다. 그렇다면 ‘강으로 극복’하고 ‘유로 극복’한다는 말의 진의는 무엇인가? 다산은 이에 대해 평강(平康)이란 평상시에 신하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곧고 바름[正直]’이라고 해석했다. 다음 극(克)은 이긴다[勝]는 뜻이니 바로 잡아 구제한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우(友)는 동료 관리들끼리 화합하고 친목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①동료 사이에 강포하게 굴고 권세를 업고 화합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현능]는 마땅히 곧고 굳세게 자립하며 강포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아야 한다. 다산은 그렇게

24) 정조는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을 자처했는데, 이는 권력의 핵심에서 통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전제군주의 태도가 아니라, 인민들의 다재다기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知人’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현능주의의 천명이었다(『홍재전서』 권10 『萬川明月主人翁自序』).

25)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7쪽) “鑄案 三德者, 臣德也. 肅·乂·哲·謀·聖, 君德也. 此臣德也.”

26)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7쪽) “三德. 一曰正直, 二曰剛克, 三曰柔克.”

27)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7쪽) “平康正直, 彊弗友剛克, 變友柔克, 沈潛剛克, 高明柔克.”

하면[剛克], 왕[황극]이 이를 살피 신하가 ‘정직한 자[正人]’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② 한편, 조화롭게 서로 화합하는 사람은 갈등하는 경우에도 부드럽게[柔] 양보하고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황극[왕]은 그 신하가 매우 넉넉한 자[有容]임을 알아볼 것이었다.

이상이 강포한 자와 부드러운 자를 상대하는 현능한 자의 태도였다면, 다음은 스스로 돌아보는 방법이다. 침잠(沈潛)은 낮은 지위에 침체된 경우를 말하고, 고명(高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상황이다. ③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동안 낮은 지위에 머물면 나약하여 뜻을 굽히기 쉽다. 그러므로 강으로써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④반대로 높이 현달하면 남에게 위압적이기 쉽다. 따라서 유로써 스스로 성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다산은 황극[왕]이 강극 혹은 유극하는 이들, 즉 현능을 잘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황극[왕]이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누가 군자인지 알아내는 것[지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였다. 다산은 이를 두고 ‘황극’과 ‘삼덕’이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십 자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신묘한 비결이요 법칙이라고 강조한 다산은, 네 가지 ‘극’ 상황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반드시 평가[고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가 정확하면 현능의 선발을 걱정할 일도 없었다.²⁸⁾

왕이 현능한 자를 선발하여 적절한 지위에 앉히는 것은 백성들의 후생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다.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백성들의 안녕이었다[安民]. 다산은 경제제민, 특히 국가재정의 운용을 가장 중시했다.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정은 머나먼 일이었기 때문이다.

28)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7~88쪽) “補云 平康, 猶言平寧, 謂人臣平居之秉德, 以正直爲本質也. 克, 勝也. 攝揉交濟曰克也. 友者, 僚友之協睦也. 僚友之際, 其有彊禦負勢不與我協睦者, 我當貞剛自立, 不爲之卑屈諂附也.[皇察之知爲正人] 其變和以相友者, 設有相觸, 我當柔順孫讓, 不爲之較絮也.[皇察之知其有容] 沈潛, 我方淹滯於下位也. 高明, 我方登揚於崇秩也. 卑沈者, 易以懦弱屈志, 故剛克之. 高顯者, 易以彊亢加人, 故柔克之.[皇察之知其有守有容] 上二克, 接人之術. 下二克, 自治之方也. (중략) 人主之辨別邪正, 以知其孰爲君子, 爲建極之首務, 故此一疇, 密近於皇極也. 文不過數十字, 而其於辨君子別小人, 誠爲神詮妙法. 皇以此四克之行, 微察群臣, 物未有逃於鑑者矣.【知遠錄】.”

5. 팔정(八政), 재정(財政)의 중요성

다산의 『상서』 해석은 ‘팔정’의 풀이에서 단연 빛을 발했다. 다산은 ‘정(政)’을 한마디로 인간의 정치로 규정했다. 정이 붙은 단어는 무조건 인간사(人間事)와 연관되었다. 그렇다면 익히 알려진 별을 의미하는 칠정(七政)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천문을 관측하는 도구로 알려진 선기옥형은 무엇인가?

다산의 선기옥형 해석은 그야말로 새롭기 그지없다. 그는 선기옥형을 도량형을 재는 ‘척도’, 즉 자와 저울로 규정함으로써 기왕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다.

순이 요에게서 선위받고 처음 시행한 통치행위는 도량형기에 관한 것이었으니 어찌 이를 의심하겠는가? 곡속(穀粟)을 먹는 일이 도량형이 없으면 고르지 않고, 도포(刀布) 같은 재화는 도량형이 없으면 고르지 못하며, 제사와 빈객 접대의 공급이나 사공·사도·사구가 관장하는 옹희와 복식, 날마다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조절이 도량형이 없으면 고르게 할 수 없으니, 천하에 이보다 큰일이 있겠는가? 도량형이 정밀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정밀하지 않으면 간교한 속임수와 사기와 절도 그리고 분쟁과 송사가 벌어진다. 이에 주자가 황종(黃鐘)이 만사의 근본이라 한 것이다. 순이 처음 정사를 펼치면서 우선 기(璣: 자)와 형(衡: 저울)을 살피지 않았겠는가?²⁹⁾

다산은 선기와 옥형을 자[尺]와 저울로 해석했다. 이처럼 칠정 및 선기옥형을 천문과 관측기구가 아닌 경제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량형’으로 해석함

29) 『尙書古訓』 권1 『堯典(上)』(『定本』 11, 167~173쪽) “舜受堯禪，其—初大政之必在於尺度權衡。又何疑哉? 穀粟之食，非此不齊。刀布之貨，非此不齊。祭祀·賓客之共，司空·司徒·司寇之掌囊贏·服食·日用百物之劑，非此不齊。天下事有大於是者乎? 度量衡精，則天下治。度量衡不精，則奸僞·詐竊·紛爭·辨訟起焉。故朱子謂‘黃鍾爲萬事之根本’。舜之初政，顧不當先察璣衡乎? 古人尙儉，其必以璿玉爲之者，何也? 木尺·木衡，詐僞之所由興也。物體彌堅，則其刻鏤彌精。物品彌貴，則其詐冒彌難。此其所以璿玉也。故東氏嘉量，改煎金錫。”

으로써, 다산은 ‘정’을 삶의 기초와 밀접한 재정의 문제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었다.

정(政)은 바르게 한다(正)는 뜻이다. 윗사람이 정치로 백성을 바르게 하므로 ‘정(政)’이라 했다. 일월오성이 어떻게 정(政)이 될 수 있겠는가? 만일 ‘성인이 선기육형을 관찰하여 자기의 실정(失政)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이때의 칠정은 곧 왕정이요, 별[칠요]과는 상관이 없다. 『상서』 『홍범』의 8정은 첫째 식(食), 둘째 화(貨), 셋째 사(祀)[제사의 공용], 넷째 사공(司空)[산림과 천택(川澤)에서 세를 거둔다], 다섯째 사도(司徒), 여섯째 사구(司寇)[속전이다], 일곱째 빈(賓)[빈객의 접대], 여덟째 사(師)이다[군대 비용]. (중략) 예부터 지금까지 무릇 ‘정’이라고 부른 것들은 모두 부세를 거두어 지출하는 종류들[財賦斂散之類]이다. 어찌 일월과 오성이 하늘에서 빛난다고 칠정이라 했겠는가?³⁰⁾

『홍범』의 ‘팔정’은 다산에 의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사무’가 되었다. 오직 토지의 경계를 바꾸고 부세를 고르게 부과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각종 국가의 업무에 지출하는 정치의 영역이 된 것이다. 왕의 급무(急務)는 토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국부를 고르게 재분배함으로써 인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었다. 순임금이 12목의 관리들을 자문(諮問)할 때 가장 주의한바 역시 ‘먹을 것’[恒産]이었다. 백성을 위한 ‘삶의 기초’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선정(善政)의 관건이었다.³¹⁾

다산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모든 부세와 공물이 토지에 집중되는 현실을 매우 비판했다. 특히 대동법 이후 전결을 중심으로 공물과 부세 등이 증가되

30) 『尙書古訓』 권1 『堯典(上)』(『定本』 11, 167~173쪽) “政也者, 正也. 上以政正民, 故謂之政. 日月五星, 何得爲政? 若云聖人察此璣衡, 以驗己之失政, [馬氏云] 則七政仍是王政, 與七曜無涉也. <洪範>: “八政, 一曰食, 二曰貨, 三曰祀, [祭祀之供用] 四曰司空, [山林川澤之所收] 五曰司徒, 六曰司寇, [有罰金罰貨] 七曰賓, [饗餼之所供] 八曰師, [軍旅之費]” (중략) 自古及今, 凡以政爲名者, 皆財賦斂散之類. 豈有日月五星, 在天成象而可云七政者.”

31) 『尙書古訓』 권2 『堯典(下)』(『定本』 11, 214~215쪽) “舜咨十二牧. 其首戒曰食. 洪範之一曰食. 亦此意也. 足食之政. 唯時宜察. 孟子以不奪農時. 爲王政之首. 亦此意也”

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³²⁾ 다산은 확실히 토지[전]에서는 조세[租]를 거두었지만, 부(賦)는 일반적인 전세가 아니라 ‘잡세’였음을 강조했다. 조(租)라는 글자의 구성 요소인 화(禾)자를 보면 조는 전세가 분명하지만 부(賦)를 구성하는 배(貝)자를 보면 곡식이 아닌 화폐로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부를 토지세[租]가 아닌 다양한 세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잡세로 규정했다. 마을의 호구 수, 화물의 거래량, 산택의 활용 여부 및 소유 주택의 규모나 사육하는 가축 수 등 다양한 재산규모를 고려하여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세원을 일컬어 ‘부(賦)’라 한다는 것이다.

부(賦)의 많고적음은 마을이 얼마나 번성한 지, 시장이 얼마나 많은지, 화물이 얼마나 거래되는지, 상인이 얼마나 왕래하는지, 산택(山澤)이 얼마나 큰지, 지세가 요충지인지 궁벽한지 등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부(賦: 잡세 일반)를 가볍게 징수하거나 무겁게 징수하며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한다.³³⁾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해, 『경세유표』에서 다산은 토지 개혁을 넘어서는 강도높은 부세 제도의 정비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호구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 소유 상태를 모두 파악하여 공정하게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한 수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적이나 양안 등 ‘인구와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다산이 호적을 부역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있다.³⁴⁾

그런데 조선의 법은 인구가 늘어도 부를 거두지 않고, 주택을 거대하게 지어도

32) 『尙書古訓』 권3 『禹貢』(『定本』 11, 295쪽) “中葉以來, 始行大同之法, 一結之田, 加輸米十二斗. 其後無名之賦, 日增月衍, 皆以田結徵之, 茲所謂用田賦也.”

33) 『尙書古訓』 권3 『禹貢』(『定本』 11, 286~295쪽) “賦之高下, 又係乎塵里之盛衰, 市肆之繁寡, 物貨之聚散, 商旅之往來, 山澤之大小, 地勢之要僻. 其斂有經重, 其率有高下.”

34) 『牧民心書』 『戶典』(『定本』 28, 86쪽) “戶籍者, 諸賦之源, 衆徭之本, 戶籍均而後, 賦役均.” 다산은 호적을 모든 부(賦)의 근원이요, 온갖 요(徭)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호적조사가 완벽해지고 공평해진 후라야 비로소 부세와 요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를 거두지 않는다. 산택에 대해서도 금하는 바가 없고, 시장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마소를 파악하는 장부가 없고, 배와 수레도 역시 수세의 제도가 없다. 수천 그루의 배와 감, 대추와 밤나무가 산과 들을 덮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병자와 홀아비 같은 호소할 데 없는 궁민(窮民)들을 군적(軍籍)에 올려서 살갓을 도려내고 골수를 뽑아내며, 해마다 전(錢)과 포(布)를 징수하여 군비를 보충하고, 황구침정이나 백골징포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도 혹 호포(戶布)나 구전(口錢)을 시행하지는 의론을 내면 만인이 떠들어대며 상홍양(桑弘羊)의 범이라고 비난한다. 이는 모두 『상서』 「우공」편의 구절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³⁵⁾

다산은 토지 이외에 세수 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지 않으면 인민들의 삶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가 부를 독점한다면 그 피해는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³⁶⁾ 다산은 『상서』 「우공」편을 완전히 재해석하여, 요순의 선정(善政)은 오직 국가의 재정 운용 능력에 따른 부의 재분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홍범』의 ‘팔정’을 천문과 연결지어서는 안되었다. 또한 범범하게 ‘관직 일반’으로 해석해서도 불가했다. 다산은 팔정을 오직 부세 제도와 관련한 국가의 ‘재정’ 운용으로 규정했다.

국가는 물론 가족이나 개인 모두 안정된 살림살이[재정]야 말로 지속 가능성의 핵심 요소였다. 자연[오행]을 어떻게 활용하여 안민(安民)의 방도를 도모할 것인가?³⁷⁾ 오행과 팔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이용후생’에 다름 아니었다. 국가는 다양한 세수를 확보하여 여러 가지 지출에 대비해야만 했다. 가령

35) 『尙書古訓』 권3 「禹貢」(『定本』 11, 286~295쪽) “吾東之法，民口蕃殖，而莫之賦焉，第宅翬飛，而莫之賦焉。山澤無禁，關市不征，馬牛無籍，舟車無制，千樹梨柿，千樹棗栗，漫山披野，而莫之問焉。唯執罷糶榮獨，無告之窮民，隸之于軍籍，剝膚槌髓，歲徵錢布，以補軍支，黃口・白骨，怨咎徹天。而有或爲戶布・口錢之議者，萬口譁然，指之爲桑弘羊。總由〈禹貢〉此節本自誤註，而《周禮》・《春秋》不用於科場，故蒙昧至此耳。”

36) 『尙書古訓』 권4 「盤庚(下)」(『定本』 12, 40쪽) “凡生生之道，宜自食其功。若一二人兼總衆人之貨，則民受其害矣。”

37)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8~80쪽) “蕭案：鄭執司空・司徒等句，槩以八政爲職官，梅則隨文立意，其例錯互，皆非也。余謂八政，皆財用斂出之政也。天錫五行，爲財用之本，人修八政，爲財用之式，此一三相應之妙也。”

접빈객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고, 군대운용의 자금 또한 절실했다. 제사 수용의 희생과 제물(祭物)은 국가에서 늘 마련해야 했다. 다양한 비용 지출은 세수의 확대로만 충당할 수 있었다. 다산은 부세를 거두고 이를 운용하는 국가의 재정 정책이야말로 통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³⁸⁾ 다산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정치가는 경제 및 재정 전문가였다.

팔정 가운데 ‘식과 화’를 우선한 이유는 ‘먹고 입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자 부세의 근원이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한서』 『식화지(食貨志)』를 인용하여, 식(食)은 농사지은 곡식을 말하고, 화(貨)는 포백(布帛)과 화폐의 통칭이니 부를 분배하고 이익을 고르게 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통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했다.³⁹⁾ 다산에 의해 ‘식화’는 농업 생산과 부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정의되었다. 『주례』의 9부(九賦)는 잡세의 징수를 의미했다.

부(賦)는 잡세이다. 조목을 대략 열거해보면, 첫째 인구(人口), 둘째 옥택(屋宅), 셋째 원포(國圃), 넷째는 육축(六畜), 다섯째 수레, 여섯째 채전(菜田), 일곱째 한속(閑粟)이다. 산택(山澤), 관시(關市), 척폐(斥幣) 등에 대한 과세가 특히 중요하다. 부는 화폐로만 징수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포(布)나 속(粟)으로 징수했는데, 이른바 이포(里布), 옥속(屋粟)이 그것이다. (중략) 『우공』의 ‘궐부(厥賦)’는 곧 『주례』의 9부이다.⁴⁰⁾

재정 운용의 핵심은 ‘과세를 통한 수입과 지출’에 다름 아니었다. 사공(司

38)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8~80쪽) “鑄案 (중략) 祭祀有共, 賓客有餼, 師旅有費, 其用浩矣. 司空有山澤之賦, 司徒有郊遂之斂, 司寇有罰金之輸, 其入富矣. 食者, 百畝之所勸也. 貨者, 九賦之所斂也. 首數之, 其餘六政, 三者收入也, 三者支出也.[進祀于三者, 重食與祭]舜修德衡, 以齊七政, 亦財用之政也.[見<堯典>] 若云職官之制, 則天官太宰, 何以遺矣?財用大政也.[《知遠錄》]”

39)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0쪽) “考證: 《漢書·食貨志》云: 洪範八政, 一曰食, 二曰貨. 食謂農殖嘉穀可食之物, 貨謂布帛可衣及金刀龜貝, 所以分財布利, 通有無者也.

40) 『尙書古訓』 권3 『禹貢』(『定本』 11, 286~295쪽) “蓋賦者, 雜稅也. 今略舉其目, 一曰人口, [據<閭師>·<縣師>·<遂人>·<里宰>] 二曰屋宅, 三曰園圃, 四曰六畜, 五曰車輦, 六曰菜田, 七曰閑粟. 而山澤關市斥幣之等, 尤其大者也. 及其斂之也, 不唯泉貨是徵, 亦小民所易得之布粟是徵, 若所謂里布屋粟, 是也. 唐·虞之禮載於<堯典>者, 皆與《周禮》鑿鑿相合. 何必賦斂之法, 虞·周懸殊?<禹貢>之厥賦, 卽《周禮》之九賦也.”

空)은 산택(山澤)의 조세가 있고, 사도(司徒)는 교수(郊遂)의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고, 사구(司寇)는 벌금(贖錢)을 수입원으로 삼았다.⁴¹⁾ 이처럼 사공, 사도, 사구는 모두 재정 수입과 관련된 직책이고, 제사[祀], 빈객[賓], 군대[師]는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식·화[2정]를 포함한 6정 전체가 부세를 거두고 지출하는 재정[पाल정]과 연관되었다.⁴²⁾ 다산은 조선후기의 급무가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백성에게 최소한의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이후 부세를 거두고 이를 지출하는 재정 운용으로 부의 재분배[通有無者]를 이루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 핵심이 팔정, 즉 국가의 재정 정책이었다.

6. 오사(五事), 지성(至誠)의 정치

다산은 오행을 철저히 자연의 재료 즉 ‘물질’로 파악했다. 어떤 상수학이나 술수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산은 한대의 유자들이 무지몽매하고 황당한 것을 좋아해서 일세를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늘이 1로 수(水)를 낳으면 6으로 땅을 이루고, 땅이 2로 화(火)를 낳으면 하늘이 7로 그것을 이루니 이것이 대연(大衍)의 수리는 식의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했을 뿐이었다.⁴³⁾ 이에 반대한 다산은 “수는 아래를 적실 뿐이고, 화는 위를 데우는 것이다. 목은 굽거나 곧으며 금은 사람의 용도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재료이다. 토는 심고 거두는 데 활용된다.”고 하여 이용(利用)의 관점에서 풀이했다.⁴⁴⁾

41)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8~80쪽) “鑄案: (중략) 司空有山澤之賦, 司徒有郊遂之斂, 司寇有罰金之輸, 其入富矣.”

42) 필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속전’을 거두어[司寇], 재난시 백성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는 다산의 육보서(六保署) 운영 논의를 연구한 바 있다. 김호, 『미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40, 2022.

43)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1~76쪽) “漢儒蒙蔽, 好爲夸誕之言, 以愚一世. 若所謂天一生水, 地六成之, 地二生火, 天七成之, 以爲大衍之數者是也. 然天地之數, 五十有五, 漢儒無故, 減五而後, 勒配於大衍之數五十, 此是絕無理義之陋說. 箕子當時, 歷數五行, 偶然先舉水火, 次提木金, 天一地二, 慮所不到. 今乃註之曰生數, 有若生數之說, 本之於箕子, 豈不謬哉. 生數成數之說, 漢初未起, 又非孔安國所能知, 亦一僞案也.”

하늘이 인간을 위해 베풀어준 문명 구축의 재료들이 오행이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재료)을 이용하여 삶의 안녕을 구현하려는 제도적 시행이 바로 팔정이었다. 따라서 자연을 활용[이용]하여 인간의 복지를 도모[후생]하면 그만이었다. 다산은 오행을 형질(形質)이 있는 것으로 하늘이 지은 바이고, 팔용(八用)을 사공(事功)으로 사람의 운용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자연스럽게 팔용은 팔정(八政)이 되었다. 오행이 하늘이 베푼 재료[天質]라면, 팔정은 사람의 이용을 감안하여 나열한 항목이라는 것이다. 숫자 5와 8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오행이 『홍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후 다산은 오행이 자연의 재료[재물]임을 여러 전거를 통해 논증했다. 『우서』와 『하서』를 보면 오행을 모두 재물(材物)로 보았을 뿐 천지 생성의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천·지·수·화를 사정(四正)으로 삼았고, 『예기』에서는 천·화·수·토를 사위(四位)로 삼았으며, 인도에서는 지·수·화·풍을 사대(四大)로 삼고, 소옹(邵雍)은 수·화·토·석(石)을 사질(四質)로 삼았고, 『춘추좌씨전』은 목·화·금·수·토를 오정(五正)으로 삼거나 목·금·수·화·토를 오재(五材)로 삼았으며, 『국어』에서는 토·금·목·수·화를 오화(五和)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외 오행이 ‘금·목·수·화·토’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 이처럼 자연의 재료는 네 가지이거나 다섯 가지일 수도 혹은 여섯이나 여덟 가지가 될 수 있었다. 다산은 천지의 이치가 오행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신비하게 해석하거나 높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⁴⁵⁾

44)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4~80쪽) “總之五行所列, 皆主利用, 故不論其本性. 若論本性, 水當曰濕冷, 火當曰燥熱, 木以柔升, 金以剛墜, 曲直從革, 非論性之言也, 不獨稼穡爲然.”

45)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1~76쪽) “-五行, 亦非其班次最尊而首數之也. <洪範>之位, 五皇極最尊, 先建皇極而後, 班次可定. 既然皇極最尊, 則必近於皇極者, 其序在先, 四六其亞也. 畫爲井疇, 則左右之密, 無異前後, 二八其亞也. 五位既尊, 則近五者宜先, 三七其亞也. 五行五福, 既黜於邊角, 又遠於皇極, 其於<洪範>之內, 位次疏邊.-五行, 非尊五行也. 且在<虞>·<夏>之書, 或稱五行, 或稱六府, [如<甘誓>·<禹貢>] 總認爲材物, 未嘗云天地生成之理, 本於此五也. 故其數目, 互有出入. <周易>以天·地·水·火爲四正, <表記>以天·火·水·土爲四位, <禮運>以水·火·金·木·爲四用, 番域以地·水·火·風爲四大, 邵氏以水·火·土·石爲四質, <春秋傳>以木·火·金·水·土爲五正, [昭廿九, 蔡墨之言] 又以木金水火土爲五材. [凡再見] <鄭語>史伯之言, 以土·金·木·水·火

『상서』의 오행은 ‘사람의 이용[人用]’이 핵심이었다. 가령 물의 용도는 아래를 적셔주는 것이다. 도랑의 물이 논밭으로 흘러가고, 끓인 물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물의 쓰임이다. 다음 불의 용도는 위를 달구는 것이다. 솥에 삶아 익히는 것, 풀무로 쇠를 불리는 것, 가마에서 기와를 굽는 것에서 온돌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를 달구는 용도이다. 그럼 나무의 용도는 무엇인가? 나무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는, 굽은 것은 바퀴나 축이 되고 곧은 것은 수레의 끌채나 몸통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곡(曲)과 직(直)으로 나무의 쓰임을 말한 것이다. 한편, 금[쇠]의 용도는 무엇인가? 사람의 용도에 따라 형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금의 용도이다. 녹인 후 종을 만들면 쇠는 이를 따라 종이 되고, 솥을 만들면 또 솥이 된다는 것이다.

다산에게 오행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오행을 활용하여 어떻게 인간의 ‘후생’을 도모할지가 관건이었다. 이 점에서 다산은 실천지행[有爲]의 정치 그리고 실천 위주의 학문을 지향했다. 『상서』의 진의는 하늘이 내려준 ‘재료’를 인간의 용도에 맞추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실천’이지 자연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이 아니었다.⁴⁶⁾

다산은 오행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시도야말로 경전의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질없는 짓으로 비판했다. 오행의 본질을 설명하려 들다가 도리어 신비한 해석으로 빠지거나 현실에 무용한 논의를 일삼는 학자들이 문제였다.⁴⁷⁾ 한의학은 가장 맹랑했다. 간은 자색이고, 폐는 홍색이며, 비장은 자색이고, 심과 신이 적색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의서에는 간을 청색 목의 장기, 폐를 백색 금의 장기, 비를 황색 토의 장기,

爲五和，其序次之無定如是也。”

46)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1~76쪽) “此經論五行，皆主人用而言。水之用，潤下也。《詩》云：“芘芘黍苗，陰雨膏之。”美潤下也。《詩》云：“爰有寒泉，在浚之下，傷不能潤下也。溝渠之灌田也，湯飲之解渴也，無非潤下爲用也。火之用，炎上也。錡釜之烹飪也，鑪鑪之鍛冶也，陶窰之燒瓦也，以至後世煖炕之制，無非炎上爲用也。[潤其下而炎其上] 所貴乎木者，其曲者爲輪爲楝，其直者爲輻爲楹，所以云曲直也。所貴乎金者，以能從人而更革也。鑄之爲鍾，金從焉，革而爲鑊，亦從焉。此之謂從革也。[馬云：“金之性，從人。] 總之五行所列，皆主利用，故不論其本性。若論本性，水當日濕冷，火當日燥熱，木以柔升，金以剛墜，曲直從革，非論性之言也，不獨稼穡爲然。[《知遠錄》]”

47)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1~76쪽) “彼[금문]未必是，此[고문]未必非，兩皆非理，一者偶屈焉耳。”

신을 흑색 수의 장기라고 한다. 다산은 이를 믿고 사람을 치료하려는 의원들을 너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⁴⁸⁾

오행을 오사와 연결짓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오사는 첫째 용모, 둘째 말, 셋째 보는 것, 넷째 듣는 것, 다섯째 생각하는 것이다. 용모는 공손하여 행동이 엄숙하고, 말은 순종하여 다스림을 만들고, 눈은 밝아 지혜를 만들고 귀가 밝아 잘 헤아리며, 생각이 지혜로우면 성스럽다는 그런 의미였다.⁴⁹⁾ 다산은 오행과 오사가 전연 별개의 내용이었는데, 복생이 『주역』을 인용하여 이·감·태·진괘를 각각 시(視), 청(聽), 언(言), 동(動)으로 삼고, 감·이·태·진괘를 수·화·금·목에 배당하는 바람에 오사와 오행이 연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전혀 무관하던 오사와 오행이 서로 연관되자 양자의 상관성을 설명하려는 온갖 신비하고 맹랑한 논의들이 난무했다.

역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천지 만물을 오행과 연결지으려고 『시경』과 『상서』를 들추고, 『주역』과 『예기』를 파고들고, 『춘추』와 『효경』 등 백가의 책을 조사하여 오행의 길흉화복에 건강부회하고 어그러진 학설로 임금을 기망했다. 다산은 천하 만세를 위해 기자가 선정(善政)의 이치[『홍범』]를 무왕에게 전해 주었는데, 후일 잘못된 오독과 신이한 해석들로 폐단만 커졌다고 한탄했다. 다산은 요순 통치의 전범인 『홍범』이 점차 신비한 오행의 술수학으로 전락하여, 마침내 선정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된 역사를 슬퍼했다.⁵⁰⁾

다산은 『홍범』의 오사를 왕의 수신과 덕행으로 해석했다. 글자 그대로 왕

48)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1~76쪽) “嗟乎!肝色深紫, 肺色淡紅, 脾色濁紫, 心腎皆赤, 十目之所視也. 乃以威力壓之曰: “肝汝青木之藏也, 肺汝白金之藏也, 脾汝土黃, 腎汝水黑. 夫肝·肺·脾·腎, 焉能不受之矣?獨恨夫學爲醫者, 兩眼如星, 而指紫爲青, 順受之, 指紅爲白, 順受之, 指紫爲黃, 指赤爲黑, 皆順受之不疑, 以爲至理在是也. 診病則曰肝木太旺, 曰肺金不清, 但知天造之初, 實理如此, 不知東京儒林之盛時, 尙爲未定之論. 豈不迂哉?[(『知遠錄』)]”

49)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6쪽) “五事, 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 恭作肅, 從作乂,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

50)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6~78쪽) “籀案: 五事自五事, 與五行絕不相涉. 伏生首起配搭之論, 而〈說卦〉物象, 離坎兌震, 爲視聽言動, 又坎離兌震, 爲水火金木, 故依據爲說曰貌屬木, 言屬金(중략)以五事配五行, 天下自此多事, 伏勝·董仲舒·劉向·劉歆·許商之等, 遂以五行作爲家計. 包括天地, 搜羅萬物, 一歸之於五行之徵應. 挾摘《詩》·《書》, 穿鑿《易》·《禮》, 蒐獵《春秋》·《孝經》百家之書, 一歸之於五行之妖祥. 誣罔聖經, 誑惑人主(중략)嗟乎哀哉! 箕子爲天下萬世, 不忍私其道, 一陳於武王之前, 而其流弊遺毒, 一至於此. 豈箕子夢寐之所到哉?[(『知遠錄』)]”

의 지극한 언행이 위로 감천(感天)하면 하늘의 가르침[啓導]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만사에 통달한다는 것이었다.⁵¹⁾ 다산은 최고권력이야말로 치국평천하에 앞서 자신의 덕행을 돌아보는 수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정을 향한 일관된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저절로 하늘의 계시가 있을 터였다.

길흉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위로 천명에 묻는 것을 계의(稽疑)라 한다. 화복이 이미 관명된 후 아래로 인사(人事)에서 이를 증명하는데 복극(福極)이라 한다. 하늘의 일은 위에 두고 사람의 일은 아래에 놓았으니 ‘계의(七稽疑)’와 ‘복극(九福極)’이 서로 조응하는 묘리이다. 이것이 천도(天道)이자 대법(大法)이다.⁵²⁾

계의는 한마디로 하늘의 밝은 지혜를 이어받는 일이었다.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상제를 밝게 섬겨 부모가 앞에 계신 듯 하늘의 명을 받으면 곧 응대했다. 하지만 후세에 도가 어두워져 명을 받는 의리는 사라지고 명을 구하려는 마음만 앞서 사술(邪術)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⁵³⁾ 상제를 부모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대한다는 것은 왕이 지성을 다한 후 감천의 계시를 받드는 의리에 다름 아니었다. 다산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채 하늘의 뜻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서(卜筮)는 지성을 다한 후 마지막에 묻는 행위였다. 먼저 사람의 뜻을 결단한 뒤에 시구(著龜)를 통해 천명을 물어야 마땅했다. 다산은 기자의 본의가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대신들과 정치를 의논하여 의심이 사라진 사안을 하늘에 물을 이유가 없었다.⁵⁴⁾ 대동(大同)의 정치는 정치 행위에 앞

51)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78쪽) “案: 德行純粹, 上能格天, 則承天之闢啓, 可以先識, 名之爲聖, 以是也.”

52)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64~70쪽) “吉凶未著, 仰詢天明, 謂之稽疑. 禍福已判, 俯驗人事, 謂之福極. 在天者戴之在上, 在人者履之在下, 此又七與九相應之妙也. 此之謂天道, 此之謂大法.”

53)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90쪽) “竊案: 卜筮之義, 紹天明也. 古之聖王, 昭事上帝, 如臨父母, 其受命如嚮, 故所重卜筮. 後世道晦, 受命之義亡, 探命之心急, 故卜筮流而爲邪術.”

54)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94쪽) “案: 箕子之言, 明此義也. 謀於乃心, 謀於卿士, 渙然無疑, 則不必及庶民卜筮. 誠以卜筮之義, 稽疑而已. 疑之既釋, 又何稽焉.”

서 의심이 들면 일단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신하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물은 후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을 물어 완성되었다. 그런데 지도자가 스스로 확신이 들고,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 동의하고 하늘의 뜻마저 어그림잡이 없다면 이는 선정을 기대할만한 상황이 분명했다.

다산은 「홍범」의 계의와 대동을 연결하여 지극정성의 정치 행위는 신하와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끝내 하늘의 뜻마저 얻게 될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성이면 감천’은 통치의 주체인 왕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실천과제였다. 다산은 요순의 선정(善政)을 하늘의 신비한 계시와 기적이 아닌 ‘성왕들의 지극한 노력의 결과’로 정의함으로써, 요순의 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후대의 왕들에게 지성의 노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결국 오행을 천지의 징후나 계시[庶徵]로 견강부회해서는 절대 불가했다. 오행과 오징(五徵)을 연결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기자는 단 한 번도 이에 관해 언급한 바 없는데 후대의 학자들이 말을 만들어냈고 한유(漢儒)들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송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산은 더위가 화의 기운인데 목에 배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추위는 수[얼음]의 성질인데 금에, 그리고 바람은 화의 작용인데 토에 속할 이유가 전연 없다고 보았다.⁵⁵⁾ 다산 스스로 오행의 상관표를 만들어 오행과 천지만사를 연결해 보았지만 결국 쓸데없는 일이었다면서, 오행을 잘못 해석하여 「홍범」이 사람 죽이는 책이 되었다고 비판했다.⁵⁶⁾

55)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94~95쪽) “籀案：五行自五行，五徵自五徵。箕子之所不言，歷歷分配，漢訟未決，宋議又起，學者將誰宗矣。九峯以雨·暘爲水·火，斯則然矣。燠者，火氣也，何以屬木？寒者，水德也，[亦水性] 何以屬金？風者，氣爲火動，何以屬土？五行之序曰水火木金土。自燠以下，九峯按其序而配之耳。於理未允，究何必然。”

56)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96~98쪽) “漢書五行志所載諸說，誣罔夸誕，無以悉辨，余試括之爲五行表，潛心玩究，彌見其破綻無理 (중략) 五行傳非殺人之書乎。”

7. 복극(福極), 상벌의 권한

다산이 『홍범』을 해석하면서 오행의 술수나 신비한 접근을 멀리했던 이유는 정치를 인간의 실천[行事]이 아닌 신이한 계시나 자연의 조화로 설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다산에게 정치는 <성실한 인간의 사업>이었다. 우공의 치수나 요순의 정치는 현능한 이들의 노력한 결과이지 범접하기 어려운 신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역대의 왕들과 관료들은 삼대의 선정이 나와는 무관한 이상적인 이야기라거나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정치라며 포기해버리기 일쑤였다.⁵⁷⁾

다산은 유배 초기에 요순 정치의 핵심 원리를 깨달았다고 형님께 자랑한 적이 있다. “최근 몇 년 이래 당우(唐虞)의 통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순우하고 조용하기만 했는데도 천하가 저절로 태평해졌다고 하는데[無爲而治]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치로 어리석은 자들의 견해일 뿐입니다.”⁵⁸⁾ 다산은 삼대의 정치는 지도자의 부지런한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자는 ‘항상 당우 시절은 희희호호(熙熙皞皞)했다.’고 하였는데 요즘 사람들은 순우하고 조용하다는 뜻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략) 희희호호는 모든 일이 다 사리에 의해 다스려져서 밝고 밝아서 티끌 하나 터럭 하나라도 악(惡)을 숨기고 더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⁵⁹⁾

지도자가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하게 알고 있어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순의

57) 『尙書古訓』 권2 『堯典(下)』(『定本』 11, 198쪽) “總之, 學者仰聖人太高, 故安於下愚. 人主推唐·虞太盛, 故遠於至治.”

58) 『文集』 권20 『上仲氏』(『定本』 4, 191쪽) “年來覺得唐虞做治之法, 比之後世, 嚴酷綜密, 盛水不漏. 今人認爲淳龐閑淡, 而天下自然太和, 此必無之理, 下愚之見, 厥初生民, 皆具食色之慾, 七根八蔓, 都是惡習, 豈有自然太和之理.”

59) 『文集』 권20 『上仲氏』(『定本』 4, 191쪽).

선정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정치가 잘 되기를 바란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능력자를 골라[知人] 이들이 백성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지[安民]를 늘 살피느라 분주했기에 이를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유위이치(有爲而治)의 업적이라는 것이다.⁶⁰⁾

요컨대 요순시절이 훌륭했던 이유는 유능한 관리들이 부지런히 일하고[유위] 그 결과를 왕의 면전에서 보고하는 검증 제도[考績] 덕분이었다. 이상적인 왕은 관료들을 상주고 벌하는 권한을 쥐고 이를 잘 활용하여 백성들을 위해 일하도록 했다.⁶¹⁾ 이처럼 현능한 자를 관료로 선발하고 이들의 업적을 평가[고직]하여 상과 벌을 적절하게 주어야만 선정이 가능했다. 요순의 정치 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좋은 관료들을 선발하고 이들이 제대로 안민을 위해 일하는지 바쁘게 살폈다. 이른바 정성스런 노력[有爲]의 결과였다. 「홍범」의 마지막이 ‘오복(五福)으로 권장하고 육극(六極)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산은 하늘의 권한을 대신하는 황극[왕]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권한을 쥐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벌의 권한이 없다면 왕은 그저 허울뿐인 이름에 불과했다.⁶²⁾

다산은 오직 왕이 상을 주거나 벌을 내려야지 아래에서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후시 밑에서 상벌의 권한을 쥐고 흔들면 나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은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참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⁶³⁾

상벌의 권한을 왕이 쥐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령 왕은 모든 행정의 최종 심급(審級)을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심리가 관료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왕은 처벌의 권한을 질 수 있었다.

60) 정조 역시 무위이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有爲’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호,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2020, 135쪽)

61) 이상 선정과 고직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산시문집』 권20 「上仲氏」(『定本』 4, 194쪽).

62)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102~103쪽) “案：維皇建極，雖總攬八疇，而其所以總攬庶物者，五福六極，威福之權在手也。拔此數節，則皇極徒擁虛器，無以發一政而施一政。”

63) 『尙書古訓』 권4 「洪範」(『定本』 12, 89쪽) “威福無形，奸濫者，犯之無難。箕子之言，若曰人臣之不敢作威作福，猶其不敢爲玉食。”

정조가 고심 끝에 형정을 심리하고 시중의 판결을 얻으려고 노력한 데 대해 다산이 그토록 칭송했던 이유이다.⁶⁴⁾

한편, 상의 권한은 어디서 오는가? 왕은 신료와 백성들에게 충분한 봉록 [富]과 명예[貴]를 줄 수 있는 국가 운용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조선후기에 토지는 이미 사적 소유물이 되었고 국가 재정은 열악했다. 다산은 당시에 관직의 분배나 인륜을 밝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부세 대상을 확대하는 과업을 넘어 혼탁한 세상에 명예를 흠치려는 자들을 골라내 의리의 시시비비를 밝혀야 했다.⁶⁵⁾ 다산에게 향산의 어려움은 물론 향심의 혼란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과제였다. 일대 개혁이 불가피했다.

대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랴 그칠 것이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⁶⁶⁾

8. 맺음말

다산은 7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상서』에 대한 주석서를 완성하여, 조선후기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견해를 정리했다. 요순 선정(善政)에 대한 다산의 평가는 ‘현능한 왕의 부지런한 정무[有爲]’에 다름 아니었다. 다산이 말하는 요순 정치의 핵심은 ‘유위이치’의 근실한 정치였다. 그간 선정의 상징으로 운위되었던 ‘무위이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단견(短見)에 불과했다. 요순의 정치는 황극의 책임을 통감한 왕이 이용후생의 정신으로 백성들의 삶

64) 김호, 위의 책, 2020, 270~271쪽 참조.

65) 다산은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가짜[충·효·열]’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가능성을 염려했다. 僞善과 僞狂은 조선 후기 성리학 통치의 문제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김호, 『조선 후기 강상(綱常)의 강조와 다산 정약용의 정·리·법』, 『다산학』 20, 2012.

66) 『경세유표』 「방례초본인(邦禮艸本引)」(『定本』 2, 30쪽).

을 윤택하게 할 때 비로소 가능했다. 삼대의 선정은 재정 정책을 통해 국부를 확충하고, 그러기 위해 능력있는 자들을 폭넓게 등용하고 신상필벌과 인센티브의 고적 시스템을 동원하여 쉴틈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조선후기의 사회는 그야말로 ‘유위의 선정’이 시급했다. 다산은 요순 정치의 핵심이 「홍범」에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형편없는 학자들이 「홍범」을 오해이나 하도·낙서와 뒤섞는 탓에 요순 정치의 진의는 오랜 동안 오해되고 말았다. 「홍범」의 진의를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다산은 그 일을 자임했다.

「홍범」의 정치는 황극을 중심으로 ‘아홉 개의 범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수신(修身)에 솔선한 유덕한 왕이 훌륭한 관리들을 선발하여 관직을 나누어주고 이들이 부지런히 과업을 수행하여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지 점검하면 그만이었다[考績]. 지도자의 핵심 덕목은 현능한 이를 알아보는 지인(知人)의 능력과 이를 통한 안민(安民)의 달성이었다.

선정의 성공 여부는 부와 귀의 분배에 달려있었다. 백성들이 고르게 너덕 하려면 그리고 능력있는 자들이 관직에 오르려면, 왕은 ‘부와 귀’를 공정하게 나누어야 했다. 일부가 부를 독점하거나 세벌(世閥)만이 관직을 독차지한다면 백성들 모두 실망하고 배반할 터였다. 다산은 조선의 왕이 「홍범」의 기획을 지성으로 실천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선정의 기회를 허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망국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안[經世論]이야말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고대의 지혜[周禮]’를 재해석한 창견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다산의 황극론은 기왕의 논의대로 ‘국왕권의 강화’가 목적이었을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왕권 강화를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다산의 황극론은 그렇지 않다. 다산에게 황극은 권력을 휘두르는 지위가 아니라 막대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였다. 권력의 집중이라기보다 책임의 막중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범범한 의미의 왕권 강화와 달리 차라리 황극을 중심으로 한 군신공치라 할만 했다.

다산은 널리 현능한 신하들을 선발하여 능력에 걸맞는 지위를 주도록 했

다. 물론 관리들이 업적을 내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일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왕은 부지런히 관리들의 고적에 관여하고 상벌의 권한을 활용하는 유위이치를 하지만, 만사에 일일이 관여하는 만기친람의 간섭이 아니었다. 국가 사무를 현능한 신하들에 맡겨두었다는 점에서 다산의 유위는 무위이치의 이상을 향하고 있었다.

선정을 달성하려면 제도의 개혁과 현능한 관리의 선발이 중요했다. 중앙의 정치가 제도 정비와 현능한 재상의 발탁에 달린 만큼 지방 행정은 팔도 감사들의 몫이었다. 특히 조선의 지방제와 행정 사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조선의 갱장(更長)은 요원했다. 다산이 힘을 다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를 집필한 근거였다. 나아가 지방관들에 대한 고적의 강화를 주장한 이유였다. 이에 대한 상론은 별도의 논고를 준비할 생각이다.

■ 참고문헌

『尙書古訓』
 『牧民心書』
 『弘齋全書』
 『經世遺表』

김만일, 『17~18세기 상서 해석의 새로운 경향』 경인문화사, 2007.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김 호,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2020.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1~4, 학자원, 2020~2021.
 위 중, 이은호 역, 『상서 깊이 읽기 - 동양의 정치적 상상력』 글항아리, 2013.
 유기우, 이은호 역, 『상서학사 - 상서에 관한 2천여년의 해석사』 예문서원, 2016.
 전성건, 『정약용의 철학사상과 체제개혁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정일균, 『다산사서경학연구』, 서울대출판부, 2021.
 김 호, 『조선 후기 강상(綱常)의 강조와 다산 정약용의 정·리·법』, 『다산학』 20, 2012.
 _____,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40, 2022.
 노지현, 『정약용의 <상서고훈> <「홍범」>편에 대한 소고』, 『세계사 속의 다산학』(김영호 편), 지식산업사, 2021.
 소진형, 『조선후기 왕의 권위와 권력의 관계: 황극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논문, 2016.
 안승우, 『성호 이익의 「홍범」에 대한 관점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86, 2021.
 이영준, 『「상서」 강의를 통해서 본 정조의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에 관한 인식과 해석 방식에 대하여』, 『漢文學論集』 59, 2021.
 이은호, 『퇴계의 『書釋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64, 2010.
 _____, 『「상서고훈」, 상서에서 찾은 새로운 도덕론』, 『다산학공부』 돌베개, 2018.
 _____, 『이환모의 『서전기(書傳記疑)』에 보이는 해석의 다양성』, 『태동고전연구』 46, 2021.
 _____, 『두실 이환모의 「홍범」관 연구』, 『東洋哲學研究』 109, 2022.

The Restoration of Yao-Shun(堯舜) Politics

–Dasan’s Understanding on the Great Plan(洪範)
in the Late 18th Century –

KIM, HO*

Dasan presented his final view on political reform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completing a commentary on *Classic of History*(尙書) just before his death. His evaluation of Yao-Shun politics, which symbolized as ancient ideal politics, was in short, the result of a wise leader’s diligent efforts[有爲] in political affairs. He dismissed idea of “governing without action[無爲而治]”, which is said to be a foolish view. A wise leader had to select competent officials to distribute government posts and thoroughly examine[考績] whether they are diligent in carrying out their tasks. Dasan defined “Great Plan(洪範)” as the core lesson of Yao-Shun politics and reinterpreted it anew. In particular, he suggested not to be misled by the numbers attached to the nine categories of Great Plan, but to understand the overall act of governing centered on the supreme power[皇極]. Five Phases[五行] were only a “material” of nature given by heaven, and it was enough to make human life peaceful[厚生] by utilizing[利用] them. Therefore, economic and fiscal policy-which correspond to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tate- were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politics[八政]. On the other hand, Great Plan described the qualities[三德] of the wise who would participate in the rule with the king, as well as the items of moral training[五事] that the king should first internalize to recognize

* SNUAC, HK professor

the wise. The absoluteness of the king's position[皇極] was based on his power of reward and punishment. He had to faithfully carry out this power so that competent officials would have sufficient incentives while those who aren't be punished reasonably[福極]. It was certain that if the king carried out the above governing act with intelligence, heaven would be moved and allow the king a chance for just rule[善政]. Dasan argued that the kings of Joseon at that time should take the lead in reforming to make the people comfortable[安民] by appointing wise officials[知人]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Great Plan. In short, Dasan emphasized that his reform plan of politics and economics[經世論] was not his mere conjecture, but rediscovery of "ancient wisdom" through a new reinterpretation of classical literature[經學].

Key words: Great Plan(洪範), *Classic of History*(尚書), the king's position, Yao-Shun politics, Jung Yak-yong.

